

충남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추진 방안 연구: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의 걸인청(乞人廳)을 중심으로

The Regional Festival Promotion Plan Utilizing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Chungnam Region: With a Focus on Tojeong Lee Ji-Ham's Geolincheong

오동일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Dong-Il Oh(ohdi7200@sunmoo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충남 아산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의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론적으로 이지함과 걸인청 관련 역사적 자료와 설화의 내용을 총체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콘텐츠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지함과 관련된 당대 문헌자료와 설화들을 살펴보면, 그는 시대를 초월한 기인이면서 동시에 백성의 구제와 자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시대정신과 경제관념을 평생 동안 실천했던 지식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논의된 이지함의 걸인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그가 추구했던 시대정신과 사상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시공간적으로 구현하고 계승하는 문화콘텐츠 형식이 자 장치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이지함 | 걸인청 | 지역축제 | 역사문화자원 |

Abstract

As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successful regional festivals acts as the promotion of regional brand images and as the driving force of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hanges in awareness that significantly accepts external promotion effects and the commercial value of regional festivals are greatly expanding. When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regional festival, which has Tojeong Lee Ji-Ham, a scholar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in the 16th century and Geolincheong as subject matter,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establishment of Chungnam Asan region's identity and to the vitaliz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He is one of the all-time eccentrics and at the same time he is an intellectual who practiced innovative spirit of the times and a sense of economy for the relief and self-support of common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during his life. In this sense, the regional festival that is based on Lee Ji-Ham's Geolincheong has meaning and values as a cultural content from and device, which realizes and continues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thoughts that he pursued, in the modern context in time and space.

■ keyword : | Lee Ji-Ham | Geolincheong | Regional Festival |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국내 지역축제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수가 급증하게 됐는데,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축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국내 지역축제 수는 총 1,214개, 지역축제 총 예산은 2,914억 원, 지역축제 총 참가자 수는 1억 3,125만 명이다. 축제의 유형은 주로 관(52.4%) 혹은 민·관(43.5%) 주도로 추진됐으며, 축제의 주제는 주로 문화예술(29.9%), 지역특산물(19.7%), 전통문화(19.6%), 주민통합(19.5%), 생태자연(11.3%)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충청북도는 축제 수 58개, 예산규모 160억 원, 축제방문객 수 437만 명이며, 대전을 제외한 세종시를 포함하는 충청남도의 축제 수는 75개, 예산규모 217억 원, 축제방문객 수 1,435만 명이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축제 수 35개, 예산규모 36억 원, 축제방문객 수 85만 명이다 [1]. 축제 수, 예산규모, 축제방문객 수를 중심으로 통계 수치를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해 볼 때, 충청남도에서 추진되고 운영되는 지역축제들이 타 지역 축제들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통계적 수치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사회문화적·경제적 인식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은 지역축제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홍보성과 상품성을 유의미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2].

특히, 각 지역에 전해져오는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은 그 자체로 문화콘텐츠의 성공적인 기획과 제작을 위한 보석의 원석과도 같은 토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추진되는 지역축제는 TV드라마, 실사영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과 같은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와는 달리 지역주민, 지역단체 등과 같은 지역주체들의 주도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지역축제의 장·단점과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고 분석하여, 토정(土亭) 이지함(李之菡)과 걸인청(乞人廳)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충남 아산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추진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 관련 당대 문헌들과 설화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료와 문학적 설화 관련 선행연구 내용의 본질과 가치를 사실(fact)과 허구(fiction)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상호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지함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이미 있었으며, 그러한 연구의 주된 내용은 캐릭터 개발을 통한 애니메이션, 게임, 팬시상품 등으로의 연계와 OSMU(One Source Multi Use) 전략,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것이다[3]. 즉,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축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와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으로 지역축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지함과 걸인청이라는 충남지역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축제의 목적과 추진배경, 명칭과 주제, 대상(표적방문객층),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구성, 일정과 장소와 같이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축제의 유·무형적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지역축제 매뉴얼과 본 연구자가 참여한 걸인청 고증 및 활용방안 관련 연구용역(아산시)의 일부 연구 성과는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4].

II. 이론적 배경: 토정 이지함과 걸인청

1. 토정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

조선 선조 때의 인물인 토정 이지함은(1517~1578)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문인학자이다. 그는 『토정비결(土亭秘訣)』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의 행적과 관련된 수많은 설화들이 전해져오고 있다. 이지함과 관련된 설화들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는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두 번째, 그는 지인지감이 뛰어나 인물됨이나 장래를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풍수지리에 능통하고 축지법과 같은 신술을 부릴 줄 알았다. 네 번째,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고 잘 보살폈다. 다섯 번째, 검소하고 절제력이 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었다[5]. 그와 같은 설화들의 주제 의식 기저에 투영된 실존 인물 이지함의 철학과 사상은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것은 이지함이 추구했던 정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6세기 조선시대는 그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대규모의 농업 경영과 세수(稅收)의 부정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번의 사회(土禍)를 거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의 정의와 도덕은 타락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지함이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은 그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설화들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애민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는 백성의 자활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분배와 정의를 추구했다. 두 번째,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시대적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제로 그에 부합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았다[6]. 그러나 신분과 직업의 귀천을 따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이 갖는 본질과 가치를 서로 구분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상호 연결하여 논의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1. 토정 이지함 테마거리(서울 마포구)

21세기 현대사회를 16세기 조선사회와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외연적으로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있으나 사회적 분배와 정의의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조선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득권층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애민사상을 토대로 국가와 백성을 위했던 이지함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써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지함이 바라본 사회적 분배는 결국 의(義)의 실현이고 그것은 가진 자의 책임 문제이기도 했다. 그는 민생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의이(義利)의 관계를 보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의의 실현은 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의의 추구는 의를 근본으로 해야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의만을 강조할 경우 민생의 문제를 가법게 보게 될 것이고, 이에 치중하게 되면 도덕의 타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에 당면했던 부조리한 사회적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지함이 추구했던 의이상보론(義利相補論)은 현대사회에서도 충분히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사상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지함은 삶의 고달픔에 지친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사회지도층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관점에서 사회지도층이라는 것은 특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지함은 조선시대 명문가 출신의 사회지도층이었으나,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삶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와 관련된 여러 설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지함은 타고난 능력으로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사사로운 소유를 멀리하며 남과 나누어 갖기를 즐겼다. 그가 보여준 이와 같은 삶의 태도와 시대적 정신은 조선시대 사회적 분배와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이지함은 신분과 직업의 귀천을 따지기보다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나 인격을 우선시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것이었으며 동시대 다른 사회지도층과는 차별된 정신세계를 보여준 것이다. 조선시대 사농공상(士農工商)은 직분적인 신분질서이지만 실제로는 계급적인 신분질서로 기능하였다. 이지함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 인간관계를 맺었으며, 자신이 직접 농공상(農工商)의 일을 부끄러움 없이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어부를 으뜸으로 삼았다고 한다[7].

2. 결인청의 의미와 가치

이지함의 행적과 관련된 설화들을 살펴보면, 그는 아산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1578년(선조 11년)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기잡이를 시키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는 수공업을 가르쳤으며, 노약자나 병자에게는 쥘신을 삼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즉, 그것은 의식을 자급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제공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립경제 교육기관의 형태와 특징을 갖는 결인청을 설립하여 운영했다[8]. 그리고 실제로 위와 같은 설화들의 내용을 토대로 결인청의 기능과 역할을 단순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것뿐만 아니라, 농업·상업·수공업에 이르기까지 백성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적기관으로까지 확장하여 바라보는 현대적 시각의 견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9].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실제로 당대 문헌 자료에서 결인청이라는 건축명이나 결인청이라는 물리

적 공간의 위치와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문헌사적 관점에서 결인청이 이지함에 의해 건립된 물리적 공간의 실제적인 건축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문헌에 따르면, 이지함은 1578년 5월에 천거(薦擧)를 받아 아산현감으로 부임했다. 그리고 그는 부임하고 오래 지 않아 상소를 올렸으며, 그 내용은 군제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충청도사가 아산현감 이지함의 상소를 올리기도 전에 이지함은 관아에서 타계했으며, 그가 제안한 어떠한 정책도 실행되지 못했다 [10][11].

이처럼 역사적 자료를 고찰해 볼 때,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후 특정의 물리적 공간을 결인청이라고 명명(命名)하고 실제로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지함에 대한 설화의 내용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특정 작가에 의해 결인청이라는 건축명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이 결인청이라는 상징적 표상을 통해 형상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작가에 의해 역사적 사실(fact)보다 더욱 사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허구(fiction)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의해 수용된 예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로 라디오 드라마 극본을 집필했던 작가 김영곤(1926~1988)은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라디오 연속극을 집필하며 무사(武士)라는 용어 대신에 ‘싸울아비’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관련 학계에서는 일본 봉건시대 무사를 뜻하는 ‘사무라이’가 백제 ‘싸울아비’에서 유래됐다고 보는 학술적 견해가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어 사전 고지엔(鑑辭苑)을 살펴보면, 사무라이는 ‘사부라푸(サブラフ)’의 명사형 ‘사부라이(さぶらい)’가 변한 말이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사무라이를 ‘주군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 또는 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2]. 그러므로 작가의 자연스러운 창작적 영감과 욕구가 역사적 사실 위에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 허구적 시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지함의 결인청 또한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 아산현감 시절 백성을 위한 이지함의 행적과 관

런된 사료를 살펴보면 ‘거실(巨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13],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부임한 후 백성을 위해 ‘시설(施設)’을 갖추어나갔다고 한다[14]. 그리고 『어우야담(於于野談)』과 같은 설화에서도 “이지함은 유랑민이 떨어진 옷을 입고 걸식하는 것을 가엾게 여겼다. 그는 큰 집을 지어 그곳에 살도록 하고...(중략)”라고 적고 있다[15]. 이처럼 이지함의 행적과 관련된 사료와 설화는 특정 공간에 대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무사’와 ‘싸울아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지함의 설화를 옮겨 적던 특정 작가에 의해 ‘걸인’과 ‘유민’을 위한 ‘거실’과 ‘큰 집’ 그리고 ‘시설’이 걸인청이라는 새로운 용어(건축명)로 탄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가에 의해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이 실천적으로 구현됐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걸인청이라는 상징적 표상을 통해 형상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지함의 걸인청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그것의 물리적 실체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백성 스스로가 자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실제적인 자활과 빈민구제 활동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즉, 이지함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며 상공업을 천시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백성 스스로 자신의 조건과 능력에 부합하는 기술 습득을 통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실천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걸인청의 기저에는 지역적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연스러운 순환적 발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사고와 실천의 상징성이 담겨져 있다.

III. 걸인청을 활용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1. 축제의 목적과 추진방향

지역축제는 분명히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지역축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주제와 소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유사성과 획일화, 내용의 질적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역주민과 축제방문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16].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운영하는 민·관 등이 뚜렷한 축제의 목적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축제의 추진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는 기존 유사 지역축제의 복제물로 인식되거나 보여주기 식의 이벤트적인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걸인청을 토대로 하는 지역축제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지함이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축제를 통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세 번째, 축제를 충남아산지역 역사문화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걸인청 기반의 지역축제는 전반적으로 내부지향을 통해 지역발전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대외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만을 기대하기보다는 도입기, 성장기, 안정기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 가능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축제의 명칭과 주제

지역축제의 명칭은 대개 지역의 명칭이나 문화유산, 고유의 동식물, 유명인물, 민속물, 토산물 등과 같은 축제 소재를 지역성, 문화와 전통, 인적자원의 특성, 경제적 여건 등과 같은 지역의 정체성과 결합시켜 의미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7]. 그리고 그와 같은 지역축제의 명칭은 축제 속에 내포된 주제적 가치를 상징적인 의미체계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축제의 가치는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현대적인 맥락으로 재생산하고 지역 고유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그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차별적인 지역적 자긍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명칭과 주제는 지역주민과 축제방문객이 몰입하고 즐기게 될 축제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은 걸인칭이라는 상징적 표상을 통해 의미적으로 형상화됐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걸인칭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 기능과 역할은 곧 이지함이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의 가치적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명칭과 주제 또한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과 의미적인 연결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인 맥락에서 독창성과 참신성을 충분히 내포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명칭은 이지함이라는 인물의 행적과 그가 실천적으로 지향했던 시대적 정신을 상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에 내포된 축제의 주제는 혁신주의적인 애민사상을 토대로 백성의 구제와 자활,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했던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과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축제의 대상(표적방문객층) 설정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구성과 운영,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축제의 주요 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를 통해 축제 개최에 따른 효과적인 홍보전략 수립이 용이하고, 교통과 숙박 등의 수요 범위 결정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매뉴얼에 따르면, 축제의 대상은 유형별 기준에 따라서 가족형태별, 방문유형별, 연령층별,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구분할 수 있다[18]. 그리고 성별, 나이, 직업, 거주지역 등과 같은 세부적인 기준을 토대로 잠재적 축제방문객들에 대한 보다 확장된 시장 세분화(market segmentation)와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은 성공적인 지역축제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제방문객들을 고만족도, 중만족도, 저만족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홍보와

관리, 축제 프로그램 구축, 만족도 향상 서비스 등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구성과 운영 요소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19].

이지함의 걸인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의 주요 대상 설정은 기본적으로 그의 시대적 정신과 행적 등을 토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함과 관련된 당대 문헌과 여러 설화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아산현감 시절 유민과 걸인의 구제와 자활을 위해 다양한 실천적인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접근해 볼 때, 지역축제의 현장은 이지함이 실천적으로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과 그가 애민사상을 토대로 펼쳤던 여러 행적들이 현대적인 맥락에서 구현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지역축제의 주요 대상은 16세기 조선시대 이지함이 신분이나 직업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백성을 보살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국민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대상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축제 추진 방향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과 걸인칭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잠재적 참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사적 사료와 설화 등에 나타나는 이지함의 행적들과 사상적 배경은 축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20][21].

표 1. 축제 주요 대상 설정

구분	이지함의 행적과 사상	주요 대상
구휼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구휼이 필요한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
자활	"절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기잡이를 시켰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는 수공업용을 가르쳤으며, 노약자나 병자에게는 침신을 삼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자활이 필요한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
나눔	"사회적 분배는 결국 의(義)의 실현이고 그것은 가진 자의 책임이다."	나눔과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기업, 단체 등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지함의 걸인칭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와 설화 내용에 나타나는 그의 사상과 행적을 토대로 크게 구휼, 자활, 나눔으로 구분하여 주요 대

상의 특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요 대상의 설정은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구성으로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축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성과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축제 콘텐츠의 개발과 프로그램 구성

축제의 본질은 축제방문객이 일상과 구분되는 비일상적인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성과 비일상성이 교차하며 전도되는 상황과 경계를 리미널리티(liminality) 단계라고 한다. 리미널리티 단계에서는 비일상적 상황이 표출되기 때문에 신성한 순간으로 간주되며 극도의 흥분이나 어떤 것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무정체성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공간을 커뮤니티(communitas)라고 하며, 그와 같은 시공간에서는 자유, 평등, 동료애, 동질성, 연대감 등이 중요시된다[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축제방문객들은 하나의 축제 목적과 주제를 공유하고 그에 부합하는 축제 콘텐츠를 즐기면서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는 다른 축제방문객들과 연대감, 동질성 등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완전하게 일상과 구분된 것이며, 축제가 벌어지는 시공간에서는 평등이 강조되고 일상과의 그 어떤 연결도 배제되어야 한다. 축제의 이러한 본질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구성된 축제 콘텐츠가 그 어떤 축제 요소보다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

역사문화자원을 토대로 하는 지역축제의 콘텐츠 개발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콘텐츠의 원형이 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지함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宣祖修正實錄』, 『燃藜室記述』, 『於于野談』 등과 같은 당대 문헌과 설화들은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원석과도 같은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현대적 시각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재생산(가공)하고 개발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이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대 축제방문객들의 감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시대 축제방문객이 요구하는 축제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문화콘텐츠에서 나타나는 단방향적인 수동적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방문객과 콘텐츠 혹은 콘텐츠를 매개로 축제방문객 상호 간 상호작용적 소통을 토대로 하는 경험과 몰입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스토리텔링은 고유의 관련 ‘이야기(story)’를 토대로 하는 축제 프로그램을 축제방문객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과정(telling)’이라고 할 수 있다[23]. 다시 말하면, 지역축제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형식은 축제(화자)와 축제방문객(청자)을 연계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축제방문객을 축제 프로그램 속에 효과적으로 몰입시키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24]. 이와 같은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지함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와 설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의 사상과 행적들은 축제 스토리텔링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며, 축제 프로그램은 그러한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제의 시공간이 의미적으로 조선시대의 걸인청을 상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

표 2. 축제 스토리텔링과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이야기	과정
퍼레이드	"이지함은 1578년 5월에 천거(薦舉)를 받아 아산현감으로 부임했다."	고증을 통한 이지함의 아산현감 부임 행사 장면 재현(여민루길 일대)
자활 프로그램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고기잡이를 시켰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에게는 수공업을 가르쳤으며, 노약자나 병자에게는 잠신을 삼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 단체, 기업 등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과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나눔 프로그램	"사회적 분배는 결국 의(義)의 실현이고 그것은 가진 자의 책임이다."	나눔과 후원을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의 현장 연계 활동
구휼 프로그램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축제방문객에게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

첫 번째, 이지함의 걸인청 관련 지역축제는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지함이 아산현감으로 부임하는 행사 장면을 재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축제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비일상적인 시공간적 의미를 축제 도입부에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출을 통해 구성된 이지함과 그를 뒤따르는 백성들의 행렬 속으로 축제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동기와 기대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지함과 백성들의 행렬이 아산 관아 문루(門樓)였던 여민루(慮民樓)에 도착을 하면 백성을 향한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을 축제방문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구성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지함과 결인청 관련 역사적 자료와 설화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가 보여준 시대적 정신과 행적은 소외되어 도움이 필요한 백성들의 실제적인 자활과 빈민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적 이야기를 토대로 현대적 맥락에서의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취업 및 무료 교육을 연계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구성하고자 한다. 이지함은 조선시대의 부조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피기 위해 의이상보론(義利相補論)이라는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사회적 분배를 통한 사회지도층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지도층의 범위를 개인을 포함한 정부기관, 단체, 기업 등에까지 확대하여 접근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소외 및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과 후원을 현장에서 연계함으로써 축제와 축제방문객 간의 상호작용적인 스토리텔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네 번째, 구휼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구성하고자 한다. 이지함의 결인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는 굶주린 백성의 구휼을 위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본 프로그램은 백성을 위한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을 계승하고 축제에 대한 축제방문객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축제 소재가 이지함과 역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전혀 무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함의 행적

과 관련된 설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지함은] 머리에 술을 뒤집어쓰고...[다니며 밥을 해먹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진다[25]. 설화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이지함이 머리에 뒤집어쓰고 다니던 술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그러한 음식의 형태가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찌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먹거리 콘텐츠로 ‘(가칭)토정찌개’를 개발하고 그것을 쇠로 만든 갖 형태의 냄비를 통해 축제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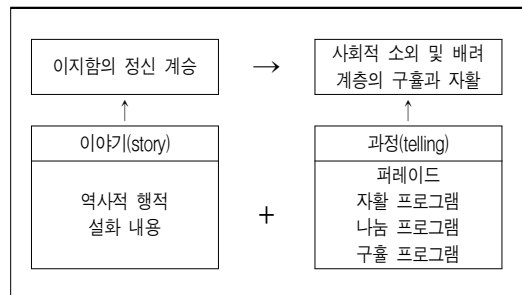


그림 2. 축제 스토리텔링의 구조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축제의 스토리텔링 구조는 이지함과 결인청 관련 역사적 자료와 설화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야기와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지함이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계승하고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앞서 [표 1]을 통해 언급했듯이 스토리텔링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료와 설화 등을 토대로 축제의 주요 대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축제방문객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축제의 일정과 장소

축제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축제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했듯이, 결인청 기반의 지역축제는 조선 시대 이지함이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과 백성을 위해 실

천했던 그의 행적을 현대적 관점에서 계승하고 유·무형의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의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 또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여 지역축제가 갖는 상징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지함이 아산현감에 제수되었던 시기가 1578년 4월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축제일정의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26], 그에 따라서 지역축제도 매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제일정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7].

표 3. 축제일정 결정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유사행사 시행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축제 및 인근 지역에서 개최되는 다른 일정 • 동일한 주제와 소재의 중복 • 표적방문객층의 설정 중복
기상조건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 가능한 기상재앙은 피해야 함 • 축제개최 중 예기치 못한 기상변동이 발생할 경우 대책 마련
소재와의 상관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소재가 계절적 요인(식물, 얼음, 스포츠)과 관련 될 경우 고령적인 개최일 보다는 시기의 적합성을 최대한 고려

성공적인 지역축제 추진을 위해 [표 3]의 내용을 토대로 매년 4월에 전국에서 개최되는 유사한 소재나 주제의 지역축제들과 비교·분석하여 콘텐츠의 개발과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최대한 형식과 내용적인 중복성을 배제시켜 실제적인 차별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는 개최 일정만큼이나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예를 들어, 역사와 관련된 축제일 경우에는 역사적 문헌 고증을 통한 유서 깊은 장소가 최적의 축제 장소가 될 것이다. 특산물의 경우에는 재배, 수확, 채집이 가능한 장소가 될 것이며, 향토음식의 경우에는 식음이 가능한 시설이나 부스설치가 가능한 곳이 축제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축제장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축제가 열리는 지역 이미지. 두 번째, 원거리 축제방문객의 교통편의. 세 번째, 근거리 축제방문객

의 접근편의. 네 번째, 행사장 근처의 유명건물 밀집현황. 다섯 번째, 행사장 근처의 상가 현황. 여섯 번째, 정보전달의 편의성(유인물, 플랜카드 설치 등). 일곱 번째, 행사장이 지나는 화제성. 여덟 번째, 축제와 장소의 이미지 연상. 아홉 번째, 지명도가 있는 행사장. 마지막으로 부대시설 유무(전시관, 무대 등)와 같은 것들이다 [28].

위와 같은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지함의 결인청을 토대로 하는 지역축제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는 아산시 영인면 소재 영인초등학교(아산시 영인면 여민루길 20)와 영인면사무소(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8) 일대가 제안될 수 있다.



그림 3. 여민루(아산시 영인초등학교)

특히, 영인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는 ‘백성을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여민루(慮民樓)는 1413년(태종 13년) 아산현감 최안정(崔安正)에 의해 건립됐으며 여민루라는 이름은 조선 초의 문신 하륜(河崐)이 지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위키백과 등과 같은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여민루를 통해 결인청의 역사적인 실재 여부를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축제에서 여민루가 갖고 있는 의미적인 상징성은 그 자체로 그곳이 아산현감 시절 이지함 행적을 그려볼 수 있는 중심지라는 사실을 역사적 지표로써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지함의 결인청과 관련된 축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시각적, 감성적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장소로써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인초등학교와 영인면사무소 두 곳은 축제 장소 결정을 위한 검토사항들 중 ‘축제가 열리는 지역 이미지’, ‘근거리 축제방문객의 접근편의’, ‘행사장이 지나는 화제성’ 등 상당수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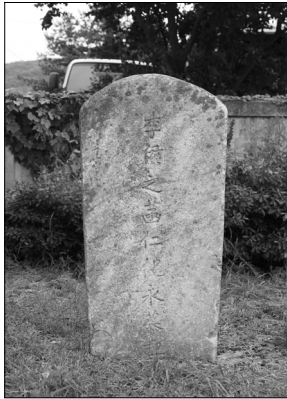


그림 4. 이지함영모비(아산시 영인면사무소)

그러므로 두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여민루와 이지함 영모비(李之菡永慕碑)와 같은 역사적 지표들을 축으로 하여 영인면사무소 앞을 지나는 영인로와 영인초등학교 입구 여민루로 이어지는 여민루길은 지역축제를 구성하는 중심적인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영인로와 여민루길에 인접해 있는 여러 역사자원과 건축물, 토속식당 등은 축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불거리와 먹거리를 충분히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지함에 대한 당대 문헌 자료와 그의 행적을 전하고 있는 설화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는 분명히 시대를 초월한 기인이자 백성의 구제와 자활 그리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시대적 정신과 경제관념을 평생 동안 실천했던 지식인이다. 그러므로 그가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을 계승하고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개와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조선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현대사회

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있는 이지함의 걸인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이지함이 추구했던 시대적 정신의 구현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문화콘텐츠의 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축제는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축제가 지향하는 목적과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걸인청 기반의 지역축제는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을 상징화하고 시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우리 사회 속에 계속해서 이어주는 장치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지함의 시대적 정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백성의 구휼과 자활은 현대적 맥락에서 볼 때 복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축제는 현대 사회의 주요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주요 키워드로 하고 있으며, 축제의 스토리텔링은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본 축제는 그 어떤 지역축제보다도 차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II: 2014년 기준 실태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16.
- [2] 박용환, 서철현, 김병국,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인식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8호, pp.3127-3144, 2012.
- [3] 이해광, 김병수, “지역 문화인물 콘텐츠개발연구 - 보령, 토정(토정) 이지함(이지함)을 중심으로 -,” 예술과 미디어, 제11권, 제1호, pp.226-239, 2012.
- [4] 지역축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8.
- [5] 최운식, “충남 지역 인물 전설의 전승 양상과 활용 방안,” 한국민속학, 제38권, 제8호, pp.495-533, 2003.
- [6] 황광욱, “토정 이지함의 인간관과 도덕적 경제론

에 관한 소고,” 한국철학논집, 제19권, pp.205-248, 2006.

[7] 황광욱, “토정 이지함의 인간관과 도덕적 경제론에 관한 소고,” 한국철학논집, 제19권, pp.205-248, 2006.

[8] 유몽인, 於于野談, 시귀선, 이월영 역, 한국문화사, 1996.

[9] <https://www.youtube.com/watch?v=TjjAwoPNWwM>

[10] 宣祖實錄, 卷 12, 宣祖 11年 5月 6日(丙辰)條.

[11] 임선빈, “걸인청의 역사적 실재와 활용방향,” 연구구성, pp.7-18, 2015.

[12] <http://news.donga.com/3/all/20171119/87352467/1>, 2017.11.19.

[13] 燃藜室記述, 卷18, 宣祖朝故事本末, 儒賢 李之菡.

[14] 宣祖修正實錄, 卷12, 11年 7月 庚戌.

[15] 유몽인, 於于野談, 시귀선, 이월영 역, 한국문화사, 1996.

[16] 문승일, 윤동환, “브랜드 확장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전략,” 관광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pp.3-14, 2007.

[17] 지역축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8.

[18] 지역축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8.

[19] 유예경, 박덕병, 윤유식, “지역축제 참가자의 축제만족 세분화에 따른 충성도 및 축제개발지지 차이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75-189, 2011.

[20] 유몽인, 於于野談, 시귀선, 이월영 역, 한국문화사, 1996.

[21] 황광욱, “토정 이지함의 인간관과 도덕적 경제론에 관한 소고,” 한국철학논집, 제19권, pp.205-248, 2006.

[22] V.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 Publishing, 1969.

[23] 송은아, 임준목,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한 스토리텔링의 도입 - 산수유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1권, 제1호, pp.37-46, 2017.

[24] 이제용, 이광욱, 유광우, 김명중, “전통문화축제의 스토리텔링이 축제매력성과 방문객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396-409, 2016.

[25] 최운식, “토정(토정) 이지함(이지함)의 설화 연구,” 한국민속학, 제33권, pp.299-333, 2001.

[26] 宣祖實錄, 卷12, 11年 5月 丙辰.

[27] 지역축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8.

[28] 지역축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08.

저 자 소 개

오 동 일(Dong-II Oh)

중신회원



- 2001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연극학과(연극학석사)
- 2013년 11월 : 사우스웨일즈대학교 문화콘텐츠분야 (Ph.D.)
- 2013년 12월 ~ 현재 :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